

## 답변서(3번째)

사건 2023나312659 [담당재판부: 제 8-1민사부(가)]  
원고 성명: 임그루  
주소:(우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13 한국통신아파트 A동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주소:(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 O. 벌금 300만원 관하여

영덕경찰에서 300만원 벌금통지서 처음 받고서, 그기에 기록된 연락처로 연락해 사기당해 억울하고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300만원 벌금이 웬 겁니까? 문의 하니 울진경찰서에 예기했습니까? 하기에 했죠! 하니 아무소리 없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기록하는 란에 피해자와 합의 했습니까? 문의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록 하지도 못했습니다. 형이 300만원에서 200만원 줄어든 것은 초범인데 벌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 TV에서 경찰이 사람 수갑 채워 잡아 갈 때 이유를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데

무슨 이유로 검찰에 넘겼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검찰에서 해명하라고 연락 왔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서 그런지 알고 싶어 피해자를 알려달라고 경찰에 찾아가고 전화 연락도 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 ○. 심한 경찰의 부당행위

2022년 4월 21일 경찰이 신고를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항의하니 “경찰이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빨리 나가.” 반말로 큰소리로 억압하고 주위에 내편은 없고 하면 공포를 느끼며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2년 10월경 하순경 과하다고 생각되는 교통별칙금 관계로 교통계 항의하러 같은데 복도에서 정혜인 경찰 마주쳤습니다. 반말로 “왜 여기 왔어 오지 말란 말이야 하고” 억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기에 사실을 기록합니다.

## ☞ 참고

이 사건과 상관없지만 교통계에 항의했다는 내용 있기에 설명합니다.(첨부 1) 2장

한 날 한 장소에 교통위반 벌금고지서가 2장이라, 경찰관련분에게 알아보니 같은 날 한 장소면 위반 여러 번 해도 1장이라 하여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3장의 교통위반 벌금고지서 받았습니다.

## ○. 경찰의 바쁜 업무 때문에 신고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①. 4월 21일 핸드폰 “신규 가입한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데” 경찰이 “신규 가입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기해도 안 되어 핸드폰 대리점에 다시 가야했습니다.”(녹취록 참고)

☞. 괴롭게 하여 신고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해명을 하여 다시 신고하니 공포를 주며 경찰서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②. 오후 4시에서 5시쯤에 사기범에게 전화 걸려와 원하여 핸드폰 신규가입 서류 와 핸드폰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서울 가는 버스로 보낼 수 있으면 방법 알려준다기에 지금은 사정상 안 된다고 평계하니 네 아침에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녹음을해서 카톡(010-3533-0991)으로 보내고 054-785-0368로 전화 연락해서 카톡으로 보낸 녹음내용 들어보세요 핸드폰 건네 때 범인 잡을 수 있겠습니다. ~ (준비서면 참고)

☞. 지금시간이 지나면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긴급한 상황이라 연락했는데 신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③. 4월21일 이날 오전10시쯤부터 신고 한다고 경찰서를 오갔는데 저 외는 범죄행위를 신고하러 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④.결국 경찰에서 신고를 받았고 제가 해달라고 한 집 주위의 CCTV를 검토해달라고 하여 했지만 여러 번 신고 안 받는다고 항의하고 관제센타 CCTV조사 도 해달라고 여러 번 하고 영상 보관기간에 안한 것도 항의해서 또 항의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 (준비서면 참고)

이런 경우는 경찰이 2023가소93 판결문 2페이지에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경찰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위법인지요?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이러 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

2951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 ⑤. 한동훈장관 핸드폰 분실사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한 장관이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강력 4팀 소속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을 수색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재향군인회 관계자 A씨가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누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었기에 형사당직팀(강력4팀) 출동한 것"이라며 "통상 휴대폰이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2번 인터넷게시물을 참고하세요.

## O. 맷음

대구법원 12월13일 변론 때 녹취록과 비교하며 녹음내용을 다 들어보고도 경찰의 빠쁜업무를 이유로 인정 안 하시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O.심한 경찰의 부당행위” 가 생각나서 “신고해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니 판사님이 1월10일까지 해명 하십시오 라고 하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첨부2번처럼 권력 있고 돈 많은 분들은 억울한 일 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책임감도 많고 국가적으로 소중하신 분들에게는 경찰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민도 사람인데 국민의 최소한의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며 또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를 당해 몇 번 범인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처럼 서민은 힘이 약하여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소연 할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첨부(참고용입니다.)

- 같은 장소 교통범칙금 2장(납부 다 했음)
- 한동훈장관 인터넷게시내용 1장

2023. 12. .

원고 임 그 류

대구법원 귀중



卷之三

11

3 6 3 2 2

의약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루마트리아는 전통적인 치료제입니다.

과태료 시전수납 의뢰서(수납은행)			
소관	관서/개화	세입장수관	관서/개화
경찰청	울진경찰서	170451	
과태료고지번호	0137-1922-7-022-028514-6	납부자	임그루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새마을5길 13-103호 (울진시아파트)	주 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새마을5길 13-103호 (울진시아파트)	
기한	2022년 11월 24일까지	사전	기한
금액	66,000원	납부	2022년 11월 24일까지
		금액	56,000원
			회 계
			일반회계

취급액을 수납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10

卷之三

四庫全書

## 한동훈 '핸드폰 분실'에 강력팀 출동? 경찰 입장보니

□ 박성의 기자(sos@sisajournal.com) | ○ 승인 2023.06.26 15:21



행사 참석자가 주워 분실물 신고...韓 직접 감사 인사  
경찰 "통상 휴대전 분실신고 들어오면 당직팀 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전쟁 기념식 참석 도중 휴대폰을 분실해 경찰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습득자를 찾아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상황을 종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한 장관이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한 장관은 행사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자 보좌진을 통해 분실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강력 4팀 소속 형사들을 투입해 체육관을 수색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재향군인회 관계자 A씨가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A씨는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인근 경찰서에 한 장관의 휴대폰을 분실물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상황을 종결했다. 휴대폰을 들려받은 한 장관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누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었기에 형사당직팀(강력4팀) 출동한 것"이라며 "습득자가 다른 경찰서에 분실물 접수한 것을 확인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에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휴대폰이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팀이 출동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ost Popular

- 1  아내와 두 딸 술은 강남 엘리트 [정략인의 사건]
- 2 '아내 살해' 변호사, 119 아닌 국회의
- 3 실내 운동은 효과 떨어진다?...겨울에
- 4 "인구 감소는 사업 기회" 지방에 깃발
- 5 이재명 '비례' 출마로 선회 할 듯...한동
- 6 의외로 '세균 박테리아' 득실대는 생
- 7 [단독]"이산가족 상봉 추진하고,尹지
- 8 낭설일까 예고일까...1군 건설사 부도
- 9 한 번 틀어지면 고생하는 '수면 패턴'
- 10 [단독]1000만원 아끼려던 금호건설,